

모두에게 물어 보고 싶다

I Want to Question by Everybody

金泰雄/경상북도 건축사회 회장
by, Kim, Tae-Woong

우리 건축사협회가 처한 오늘의 상황은 비상한 사태에 처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별 이의가 없을 것이다. 이러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들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며, 이 원인들을 검토함에 앞서 우리는 겸허하고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

본 협회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 내가 보고 느낀 바를 정리하고 소박한 나의 견해를 이에 관련된 분들에게 질문으로 물어 보고자 한다.

이 견해는 내가 생각한 바의 솔직한 정리이며, 이 물음은 진실을 조금이나마 규명하고, 이 자문(自問)을 통해서 자기 반성과 본 협회의 발전 및 우리의 건축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.

1. 대내적인 문제

1) 우리 회원들에게

지금까지 우리들은 각자의 이해(利害)에 집착하여 나의 발전과 협회의 발전이 공존되도록 생각의 폭을 넓혀 보았으며, 이 사회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투철한 자아의식과 국가관을 가지고 우리의 업무를 수행해 왔는가? 를 묻고 싶습니다.

2) 협회 임원들에게

투철한 사명감과 협회를 위한 진정한 마음으로 큰 비전을 가지고, 계획하고 실천해서 이 나라 건축문화의 발전에 견인차의 역할을 다해 왔으며, 이 나라 건축의 최고의 민간조직으로써 국가의 건축과 도시문제들에 대한 훌륭한 제안과 정책개발에 기여하여 국가에 봉사하겠다는

의지와 실천이 있었는가?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.

3) 건미준에 관여한 회원들에게

• 여러분들의 주장이 현재의 건축설계와 감리분야의 현실에 부합된 주장이며, 그 주장의 정당성 이전에 이상과 현실의 심각한 괴리를 어떻게 조화(調和)시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상론(理想論)이 아닌 실천 가능한 현실론(現實論)인가?

• 여러분들의 제안이 국가기관에 반영되어 현실적으로 법제화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거나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 할 경우, 이 국가와 사회 및 회원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겠는가?

• 여러분들의 주장대로 건축사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업무를 하였다면 왜 우리 회원들의 대다수는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가?

• 3배 이상의 건축사들이 올해 배출된 점은 환영하나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건축사의 질적 저하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?

• 과연 여러분들의 제안이 국민제안(國民提案)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가?

• 마지막으로 본 협회 회원으로써 여러분들의 제안들이 본 협회와 협의를 거쳐야 정도(正道)라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? 이 점들을 묻고 싶습니다.

4) 감리단을 운영하시는 회원들에게

설계와 감리는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앞으로 반드시 설계자가 감리를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협조하고 찬성하실 것인가?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.

“

건축은 그 시대정신의 표현이며, 인간의 존엄성이 수용되어야 하는 생활공간입니다. 그리고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문화재입니다.

이러한 귀중한 건축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는 척박한 문화환경이 다시는 이 나라에서 재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.

우리 건축사들은 현재의 암울한 현실을 넘어 조금은 화평함 속에 조그마한 미래의 희망을 갖고 진정한 우리들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정화(淨化)된 건축환경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.

”

2. 대외적인 문제

1) 건축관련 국가기관들에 대해서

6·25동란으로 폐허화된 국토를 오늘의 번영된 조국을 건설하는 데 우리 건축사들의 노력과 봉사가 다른 어느 분야보다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.

• 현재 건축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상황들은 불신과 규제의 대상으로 이에 상응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는데, 여러분들이 진정 우리 건축사들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볼 수 없는가?

• 지난 30여년 동안 진정한 의미의 건축이 몇 %나 건축되었는가?

• 건축은 재산의 증식수단으로 이용되는 전반적인 사회풍조 속에 아무런 제도적인 보장도 없는 건축사들에게 적법과 책임만이 요구되는 암울한 현실과 우리 건축사들이 진정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와 건축환경에 대한 고려는 해줄수 없는가?

진정한 건축은 자유와 창조적인 바탕 위에서 개화(開花) 될 수 있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.

• 그 동안 우리 건축사들이 감내한 무수한 처벌과 행정조치를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며,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?

• 전국의 모든 사무소가 UR에 대비해서 대형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? 지역여건에 맞는 적절한 규모의 사무소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때,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상태라고 고려될 수 없는가?

• 설계사무소의 대형화만을 유도하는 방향보다 설계분야에 관련된 모든 분야(구조, 전기, 소방, 기계설비, 조경, 실내디자인, 교통평가, 지역개발, 도시계획, 기타)의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고 더 현실적이라고 고려될 수 없는가? 를 묻고 싶습니다.

2) 국민 여러분들에게

건축은 그 시대정신의 표현이며, 인간의 존엄성이 수용되어야 하는 생활공간입니다.

그리고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문화재입니다.

이러한 귀중한 건축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는 척박한 문화환경이 다시는 이 나라에서 재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.

우리 건축사들은 현재의 암울한 현실을 넘어 조금은 화평함 속에 조그마한 미래의 희망을 갖고 진정한 우리들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정화(淨化)된 건축환경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.

우리가 품고 있는 건축에 대한 꿈과 정열을 이 국가를 위해서 맘껏 펼칠 수 있는 장(場)의 마련을 부탁드립니다.

전국의 4천2백여 건축사들에게 큰 격려와 이해를 또한 부탁드립니다. 아마 우리 회원들은 침울한 기분을 심기일전해서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